

#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들어 한국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성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성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1996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정경균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13개 고등학교 남학생 1천6백76명과 여학생 1천3백84명 중 남학생은 16.7%인 2백78명이, 여학생은 5.4%인 75명이 각각 성 경험을 하였다. (<http://youth.co.kr/re04005.htm>) 호서대 김혜원 교수팀 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의 남녀공학 인문, 실업계 고교 1~3학년 남학생 1천5명, 여학생 1천 43명 등 총 2천 49명(평균 연령 16.84) 중 약 10.7% (남학생 13.5%, 여학생 8.1%)가 성 경험을 하였다. (경향신문, 2001년 2월 6일) 반면 중학생의 성 경험의 비율은 5.8%이며 이중 남학생이 7.5%, 여학생이 4.4%로 나타났다. (김상원 · 이명숙, 2000: 29) 그러나 한 평범한 인문계 고 3 학생이 자기 반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성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실제 성 경험의 비율은 위에 제시된 비율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일보, 2000년 4월 7일)

이렇게 청소년 사이의 성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청소년들이 성 관계를 할 때 피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혜원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성 관계시 피임을 사용하는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17.8%, 여학생의 경우는 13.6%에 불과했

다. (김혜원·이해경, 2000) 고려대 의대 구병삼, 홍명호 교수팀에 의해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 13-19세 여성 1만 1,42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 의하면,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의 5.2%이고 이중 37.2%만이 피임을 하였다. (<http://youth.co.kr/re/re04038.htm>) 중학생의 경우 역시 성 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는 비율은 76.8%에 이르고 있다. (김상원·이명숙, 2000: 31)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김혜원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피임도구를 사러 가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33.3%), 준비를 못해서(19.2%), 상대방이 원치 않아서(9.1%), 구임방법을 몰라서(9.1%), 사용방법을 몰라서(4.0%) 등이었다. 반면 아우스성상담소 설문조사에 의하면, 16.2%가 임신할 것 같지 않아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문화일보, 2001년 4월 25일)

이처럼 청소년 사이에서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성에 대해서 더욱 개방적으로 되어 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성 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청소년의 임신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의 임신 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김혜원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임신을 시키거나 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2.2%, 여학생은 10.8%가 임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임신 경험이 있는 학생의 45%는 1회 이상, 25.7%가 2회 이상, 8.3%가 3회 이상 그리고 4회 이상도 상당수에 달했다. 임신 후 해결방법은 인공유산 시켰다(76.8%), 낳아서 기르고있다(10.7%), 자연유산 시켰다(8.0%), 낳아서 입양시켰다(4.5%) 이다. (경향신문, 2001년 2월 6일) 중학생의 경우 역시 여학생의 0.8%가 임신 경험이 있고 임신했을 때는 인공유산(71.4%)과 출산 후 입양(28.6%)을 하였다. (김상원·이명숙, 2000: 34) 대한가족계획협회

가 서울 등 전국 주요 공단지역에 설치한 7개 청소년 상담실을 통해 상담한 결과에 의하면 10 대 소녀들의 가장 중요한 상담 의뢰 내용은 ‘원치 않는 임신’(18%)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1996)

청소년들이 임신을 한 후 임신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낙태이고 두 번째는 입양,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기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세 방법 모두 청소년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임신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낙태이다. 서울 청량리와 종로 등지의 ‘낙태전문 산부인과’ 10곳을 찾아가 알아본 결과 한 달에 30~50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절반 정도가 미성년자 낙태로 분석되었다. (문화일보, 2001년 4월 25일) 특히 문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낙태가 피임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청소년의 경우 “임신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또 수술 받죠 뭐.” “귀찮고 번거로워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서 “임신하게 되면 재수 없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수술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년 2월 21일) 또한 청소년들은 낙태를 대비해 낙태계를 들기도 한다. (Newsvision 21, 2001년 6월 1일)

그러나 낙태를 경험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낙태로부터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청소년은 낙태할 때의 기분에 대해 ‘아이에게 죄책감이 든다(39.2%), 비참하다(27.4%), 남자친구가 원망스럽다(19.4%), 부모에게 죄책감이 든다(16%)고 말하고 있다. (문화일보, 2001년 4월 25일)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낙태 후 제대로 몸 관리를 하지 않아 염증 등 낙태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혹은 몇몇 청소년은 거듭된 낙태로 인해 불임의 상태까지 가기도 한다.

임신을 한 청소년 중 낙태 시기를 놓칠 경우 청소년은 미혼모가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대 미혼모는 89년 총 미혼모의 24.9%이었으나 90년 31.4%, 93년 32.4%, 96년 42.5%, 97년 47.9%로 급증하고 있다. 2000년 6월말 현재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739명의 미혼모 가운데 10대가 58.5%에 달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1년 2월 22일) 미혼모 중의 대부분은 일단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을 시키기 위해 입양기관에 아이를 위탁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그냥 아이를 내버리기도 한다. 결국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미혼모가 임신 중 겪을 수밖에 없는 정서적 불안, 갈등, 임신모의 부족한 영양 섭취, 혹은 미혼모들의 흡연, 음주 등으로 출생 후 많은 장애를 겪게 된다. 미혼모 역시 출산 후 아이에 대한 미안함, 죄의식, 산후 관리 부족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한 청소년들이 아이를 원할 때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실제 임신한 청소년은 아이를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낳아 기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여기는 분위기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지원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 처음에는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 학교 문제, 가정 문제, 사회적 편견 등에 부딪치게 되면 결국 아이를 포기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청소년이 임신하였을 경우 주어진 선택은 기껏해야 낙태 아니면 입양이다. 그러나 이 두 선택 모두 청소년에게 혹은 아이에게 많은 상처를 가져다준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임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임신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임신을 방지하기 유일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성교육이다. 그러나 “십대들의 쪽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나 (77.1%) 집에서(2.7%) 성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남학생보다 훨씬 많은 여학생들이 (91%) 성교육을 받고 있다. (<http://youth.co.kr/re/re04015.htm>) 그러나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은 실제 성 관계를 맺을 때 거의 피임을 하지 않는다. 물론 성교육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대전 YWCA가 최근 대전지역 남녀 고교생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30.1%가 「성충동 및 성 관계」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이 받는 주요 성교육의 내용은 「신체 발달과 생리변화」(45.9%)이다. (<http://youth.co.kr/re/re04132.htm>)

김혜원 교수팀은 기존의 성교육의 문제점으로 (복수응답) 피상적이고 지루한 내용(61.2%), 청소년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내용(52.6%), 교재 및 지침서 부족(28.7%), 교사의 지식부족(28.3%)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가장 필요한 성교육 내용으로는 임신과 피임(46.5%), 이성교제(41.1%), 이성간 성교(36.9%), 성 태도 및 가치관(36.1%) 등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2001년 2월 6일)

이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성교육의 내용이 좀 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임신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성교육에서 제대로 피임 교육을 시키더라도, 청소년들의 속성상 혹은 청소년의 성 관계 속성상, 실제 성 관계를 맺을 경우

에는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마 한국의 청소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성교육 내용의 보완만으로는 청소년의 임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청소년의 임신 문제로 고민해오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 임신 예방 대책은 한국의 청소년 임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십대 임신 비율을 보였던 미국은 여전히 높은 임신 비율로 고민하고는 있지만 1990년 1000명당 117명이었다가 1997년 1000명당 93명으로 십대 임신 비율이 약 24%의 감소하였다. 이런 빠른 감소율은 그러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지역 사회가 모두 하나되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십대 임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결과이다. 즉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십대 임신 예방 정책을 세우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금욕교육, 에이즈/성병 예방 교육, 피임교육 등의 성교육과 십대들의 성 건강을 위해 학교내의 보건소를 설치하는 등 십대 예방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온 결과이다. 특히 금욕이나 피임만을 강조하는 성교육만으로는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기 힘들다고 보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성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성 교육적 요소뿐만 아니라 십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다양한 요소들을 프로그램 내용에 삼입하여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청소년의 임신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

도를 가지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성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임에 대한, 혹은 임신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성행위 증가는 바로 십대 임신 증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임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임신문제는 곧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도 십대 임신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되기 전에 십대 임신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십대 청소년의 성, 임신의 현황을 분석하고 십대 임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보려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성과 그것의 결과인 임신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과 임신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과 임신을 바라보는 입장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성, 피임, 임신, 낙태, 출산의 현황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아울러 현재 십대 임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해보려고 한다. 셋째, 한국보다 훨씬 일찍부터 십대 임신 문제로 고민해온 미국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해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청소년의 성, 피임, 임신, 낙태, 출산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미국 정부와 사회에서 십대 임신을 보는 입장, 그리고 십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을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경험이 한국의 십대 임신 문제와 대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해보려고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필요성, 연구 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본 연구의 본론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청소년의 성과 임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과연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봐야할 지, 성적 존재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서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성을 보는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다른 세 입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 관계를 짚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청소년의 성은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져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청소년이 성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의 성행위의 결과인 임신은 현재 어떠한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볼 것이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위 변화, 그리고 그 결과인 청소년 임신, 낙태, 출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들이 성, 피임, 임신, 낙태, 출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나아가서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한다.

본론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십대 임신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미국 십대의 성행위, 피임, 임신, 낙태, 출산 등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서 미국이 십대 임신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최근에 기존의 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개발한 복합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성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활용하는 다접근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접근 모델을 토대로 한 복합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점을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미국의 십대 임신 예방 대책이 한국의 십대 임신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지를 살펴볼 것이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본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선 청소년 성을 다룬 여러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성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 논문을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의 성과 임신을 바라보는 입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청소년 성 문제를 다룬 연구 논문, 십대 임신과 미혼모를 다룬 TV 방송 프로그램과 신문기사 등을 보고 분석할 것이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는 한국 청소년의 성, 피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수집,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성행위, 피임, 임신, 낙태, 출산 현황을 다룬 최근 자료와 통계 등을 조사,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임신 문제 등을 다루는 기관을 조사, 직접 방문하

여, 관련 담당자를 만나 면접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임신, 낙태, 출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헌자료, 청소년 성 문제를 다룬 TV 프로그램, 신문 기사 등을 조사, 분석할 것이다. 정부의 청소년 임신, 낙태, 출산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부 정책 등을 조사하여 검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의 시설을 방문하여 미혼모의 정부대책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 미혼모들을 인터뷰해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입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양 대책이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해볼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 시설과 입양 시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론의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는 미국 청소년의 십대 성행위, 피임, 임신, 낙태, 출산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인터넷 자료, 연구 논문 등을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해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다접근 모델(Multicomponent Model)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 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화 인터뷰를 하거나 이메일 활용하여 담당자와 연락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공받은 자료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 해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 부분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성, 피임, 임신, 낙태, 출산의 현황을 비교, 표로 만들어 볼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십대 임신 대책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한다.

## II. 한국에서 청소년의 성과 임신을 보는 관점

1. 과연 청소년은 성적 존재일까?
2. 청소년의 성을 바라보는 입장들
3. 한국에서 청소년의 성을 바라보는 입장
4. 한국 청소년의 임신을 다루는데 있어서 취해야할 관점



## II. 한국에서 청소년의 성과 임신을 보는 관점

한국에서 청소년의 임신을 이야기에 앞서 먼저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한국에서 청소년의 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져 오고 있는 가이다. 실제 한국에서 성인의 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일이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경우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남녀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성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성은 새롭게 중요한 논의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성인의 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유교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에서 청소년의 성은 거론되어서는 안될 불문율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중 성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은 뭔가 잘못이 있는 비행 청소년 혹은 문제 청소년으로 간주되었다. 실제 지금까지 청소년 성과 관련한 많은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시대 상황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말하는 ‘문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 사이에서 성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성 관련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아울러 청소년의 성행위 참여가 늘어나면서 그것의 결과인 임신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연, 청소년의 성은 많은 학자나 현장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끝었던 ‘아우성’(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의 출현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중학교부터는 피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 5단계로 나뉜 성교육 교사 지침서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 2001년 3월 23일)

그러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기초 조사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소년 성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도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과연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을 과연 성적 존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에게 성은 무엇이며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나 성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이 성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지, 만약 인정받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인정받지 않게 됨으로써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결과인 청소년 임신이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청소년의 임신 문제에 대해 사회와 성인들의 무관심, 무대책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의 성 문제, 임신 문제 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 사회나 성인은 어떠한 입장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볼 것이다.

## 1. 과연 청소년은 성적 존재일까?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생물학적 혹은 생리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은 커다란 신체적 변화를 보이게 된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가슴이 나오고 월경이 시작되고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어깨가 넓어지며, 몽정을 하기 시작한다. 특히 남녀 사이에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성호르몬은 남녀 성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성호르몬인 안드로젠(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젠(에스트라디올)은 남녀 모두에게 나오지만 사춘기 남자 청소년에게는 안드로젠이 특히 많이 나오고 여자 청소년에게는 에스트로젠이 특히 많이 나오게 된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테스토스테론)은 남자 청소년의 성기를 구성하는 고환과 음경을 발달시키고 정자의 생산을 가능하도록 한다. 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에스트라디올)은 여자 청소년의 유방을 발달시키고 여성의 생식 기관인 자궁과 질의 발달을 자극한다. (손영숙, 1998: 44-45)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안드로젠이 20 내지 60 퍼센트 더 많이 생성되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에스트로젠이 약 20 내지 30 퍼센트 더 많이 생성된다. (Moore & Rosenthal, 1993: 46) 또한 테스토스테론의 경우 가장 성숙한 남자 청소년과 가장 미성숙한 남자를 비교할 때 9 배정도 차이가 나고 반면 가장 성숙한 여자 청소년과 가장 미성

숙한 여자 청소년을 비교할 때는 2 배정도 차이가 난다. 반면 에스트라디올의 경우 가장 성숙한 여자와 가장 미성숙한 여자를 비교할 때 8 배정도 차이가 나고 반면 가장 성숙한 남자와 가장 미성숙한 남자를 비교할 때는 2 배정도 차이가 난다. (손영숙, 1998: 44-45) 그리고 배란기의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젠이 평상시에 비해 6배가 증가하고 정자 생성시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평상시에 비해 20배가 증가한다. (Moore & Rosenthal, 1993: 46) 이처럼 사춘기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호르몬은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 특징을 부여한다.

또한 청소년의 이런 생물학적 변화는 청소년의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성적 욕구를 갖게 된다. 특히 프로이드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자들은 성적 존재로서 청소년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Moore & Rosenthal, 1993) 프로이드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 일시적으로 잠자고 있는 잠재기의 아동과 달리 청소년기의 청소년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성적 욕구를 지니게 된다. 자연 이들은 청소년기 이전(특히 남근기 때)에 가졌던 모든 갈등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육체적으로 성숙된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부모(아들은 엄마, 딸은 아빠)에 대한 환상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초자아가 어느 정도 발달된 청소년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대신 이들은 성적 에너지를 배출할 대상을 찾게 되고 결국 동료 친구를 그 대상으로 삼게 된다. 즉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부모로부터 차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동료 친구에게 성적 관심을 돌리는 과정 속에서 이들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성 기능, 성 가치, 성 역할을 배우게 된다.

청소년기보다는 남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프로이드에

비해 그의 딸 안나 프로이드는 청소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안나 프로이드에 따르면, 청소년기 때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적 에너지이고 결국 청소년은 주체할 수 없는 강한 성적 에너지에 의해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는다. 특히 이런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키는 원인은 바로 사춘기 때 급격히 증가하는 성호르몬이다. 이 성적 호르몬은 잠자기 때 일시적으로 잠자던 성적 에너지를 다시 깨우게 되고 일단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성적 에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작용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청소년을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든다. 결국 청소년은 이런 감정적 혼돈, 심리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방어기제를 만드는데 실패한 청소년은 계속되는 정서적 갈등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안나 프로이드는 바로 청소년이 성적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방어기제를 발달시키는 과정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안나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피터 블로스의 경우도 청소년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미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성적 만족을 제공해주었던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한 청소년들은 정서적 안정을 얻고, 그리고 성적 충족을 얻기 위해 부모가 아닌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성적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성적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이 부모를 대신하여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성적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구로부터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그 대상에게

거의 맹목적이 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한 쉽게 상처를 입게 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프로이드, 안나 프로이드, 피터 블로스는 청소년기를 그 어느 때보다 성적 에너지가 강한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초자아가 발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 청소년은 이전 시기(특히 남근기)와 달리 가족 밖에서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충족시킬 대상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일단 대상을 찾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성적 경험을 해 보고 싶어하고 실제로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청소년 시기는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고 이런 관심이나 실제 다양한 성 경험은 이들 청소년이 성인으로서 성숙하는데 있어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았다.

청소년의 성적 에너지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이드, 안나 프로이드, 피터 블로스와 달리 청소년의 사회적인 관계에도 관심을 가진 에릭슨은 청소년들이 성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바로 청소년의 모든 행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신 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에릭슨은 청소년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나 성적 실험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친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어떤 한 사람만을 사귀도록 강요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에릭슨

도 프로이드학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이드와 달리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모든 행위를 성으로 환원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은 청소년들이 이루어야 할 자아정체감 확립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말해 프로이드, 안나 프로이드, 피터 블로스와 마찬가지로 에릭슨도 청소년들이 성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마치 성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성적 성숙을 이루면 마치 다른 성숙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에릭슨은 지나치게 성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청소년의 성 문제를 다루는데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청소년들이 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나름대로 밝혀보려고 하였다. 물론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서 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전의 어느 시기보다 성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임에 틀림 없다. 또한 성적 성숙 역시 청소년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성적 존재로 보고 그들의 다양한 성적 경험, 행동들을 인정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성적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청소년들은 성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성을 억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그들의 성을 인정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인정해주되 성인과는 다른 수준에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만약 성인과 다른 수준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

## 2. 청소년의 성을 바라보는 입장들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성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 여러 다른 입장이 있어왔다. 그리고 그 입장은 크게 세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청소년의 성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되 청소년은 아직 발달 과정에 놓여있고 성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으로 결국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위해서는 성인의 역할,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은 청소년의 성은 성인의 성과는 다르고 자연 청소년의 성의 주체는 청소년이어야 하고 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율성은 최대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성인은 가능한 한 청소년의 성에 간섭이나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수 있다.

세 번째 입장은 청소년의 성은 필요 이상으로 억압을 받아오거나 필요 이상으로 집착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데에는 지배 권력의 권력 유지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해 지배 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묘하게 타자로서, 혹은 피지배자로서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각각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소년의 성을 보는 첫 번째 입장 (Susan Moore & Doreen Rosenthal, 1993)은 무엇보다 청소년기를 좀 더 성숙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청소년기의 성의 발달은 다른 여러 발달-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자아정체감 발달 등과 같이 좀 더 성숙된 성인기를 맞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발달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성의 발달이 다른 발달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 입장은 청소년과 성을 다루는데 있어 프로이드보다는 에릭슨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성의 발달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의 발달이 다른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성의 발달은 단지 전체 발달의 한 부분으로서 성의 발달과 다른 발달이 함께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만 청소년은 좀 더 성숙한 성인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어진 성은 일단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또한 그것의 사용 여부에 따라 좋은 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성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성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나쁜 성, 부정적인 성 혹은 아름답지 못한 성과, 건강한 인간 관계를 토대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생산까지를 포함하는 좋은 성, 긍정적인 성, 혹은 아름다운 성으로 구분된다. 청소년기의 성 발달이란 다른 아닌 가능한 한 긍정적인 성, 아름다운 성을 키워 가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에게 좀 더 긍정적인 성 의식, 태도,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 성인이 되어 아름다운 성을 키워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은 청소년의 성 발달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 태도,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올바른 성교육을 제

공해야한다.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긍정적인 성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간 관계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게 해야한다. 또한 성과 관련한 책임의식, 성병과 AIDS를 예방할 수 있는 지식, 피임방법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대처 방법 등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처럼 성교육은 성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정보를 그대로 주입시켜주는 성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 행위, 취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미래에 좀 더 긍정적인, 아름다운 성을 영유할 수 있게 하는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입장은 보수주의 입장과 달리 무조건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성인들의 지도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성인과 청소년과의 관계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성에 대해 지도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사이에 라포(rapport)나 믿음이 충분히 형성되어야하는 데 실제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또한 과연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지도, 교육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점이다. 실제 많은 경우 성인들은 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들이 바로 말하는 부정적인 아픔답지 못한 성을 현실에서 실천해오고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좋은 성, 긍정적인 성을 배우는 만큼 성인들에게 나쁜 성, 부정적인 성도 배우게 된다. 혹은 나쁜 성, 부정적인 성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입장대로 성인이 청소년에게 지도적인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인들의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성인들이 우선 좋은 성, 아름다운 성을 실천해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입장이 주장하듯이 성의 구분-공정적인 성과 부정적인 성, 아름다운 성과 그렇지 못한 성-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긴다. 실제 성은 이처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은 그 자체 내에 여러 면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자로 재듯이 이렇게 딱 잘라 어떤 성은 좋은 성, 어떤 성은 나쁜 성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거듭 말하자면 이 입장은 실제 성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있지 않고 있나 생각된다. 물론 성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청소년에게 성이 가지는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 입장은 빌헬름 라이히로 대표되는데 무엇보다 "십대에게는 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할, 그리고 훈련과 연습을 거쳐 어른이 되어야 하는 성은 아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성은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인의 성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첫 번째 입장과 달리 청소년의 성이 성숙되고 발달하면 성인의 성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청소년의 성과 성인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지연, 1994 : 99) 그러나 문제는 아직 청소년의 성은 자신을 부를 어떤 이름도 갖지 못했으며,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느낌도 적절히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지연, 1994: 99)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은 철저히 성인에 의해 이름 지어지고 통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지배적 성 담론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성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된 성 담론 속에서 청소년들은 흥분하기도 하고 문득 자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로 응시되기도 하고 자애롭게 타일러지기도 하고 아니면 거친 폭언으로 위협받기도 한다. (이지연,

1994: 99)

이처럼 두 번째 입장은 첫 번째 입장과 달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성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있어 성인의 간섭, 통제는 불필요하며, 차라리 청소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더 도움을 될 것이라고 본다. 성교육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교육은 어린 성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어린 성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섹스를 제외하고 대신 섹스와 관련된 뻘뻘한 생물학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들로 가득 메우려고 하고 있다. (이지연, 1994 : 97)

이 입장은 청소년의 성이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 발달한다는 발달론적 입장을 거부하면서 이것은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플롯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성은 성인의 성과 다르고 이런 다름은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이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청소년에게 성적 자유와 권리,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입장은 더 나아가서 청소년이 자신들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 과정에 어울리는 성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며, 그런 행위는 인정되고 보호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지연, 1994 : 102)

이 입장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성적 발달, 성적 성숙을 이루는데 성인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더 많이 주고 있다.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지식, 성행위를 가르쳐 준 것도 성인이며 한편으로 청소년이 성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라 단정짓고 벌을 내려온 것도 성인이고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간섭을 해온 것도 성인이다. 실제 지금까지 성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성인과의 관계는 서로 협력의 관계라기보다는 불편한, 끊임없이 갈등이 내재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입장은 성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성인과의 관계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자유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한다고 하여 성인 없이, 성인과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는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직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청소년 성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성적 자유를 부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청소년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성을 개발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 자유라는 이름 하에 청소년들은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더 많이 왜곡된 성인들의 성에 노출되고 더 많이 성인들에게 성적으로 이용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이 주장하는, 청소년의 성은 성인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 청소년에게 성적 자유를,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입장은 청소년의 성은 다른 약자의 성, 혹은 타자의 성과 더불어 지배 권력을 유지, 정당화시켜주는데 이용당해 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이용이란 단순한 억압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을 담론화하는 방식 혹은 전반적인 청소년 성 담론의 내용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입장은 청소년의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 권력이 청소년의 성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억압하고, 어떻게 청소년의 성담론을 형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 확산 혹은 억제시켰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통제된 청소년 성담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개인 생활 혹은 성생활은 어떻게 지배, 통제 혹은 억압되어왔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단순히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배권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적 사고 방식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푸코이다. 물론 푸코는 청소년의 성에 국한되어 그의 이론을 펼친 것은 아니다. 푸코는 성이 어떻게 지배 권력에 의해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푸코에 의하면 육체와 영혼, 건강과 도덕, 교육과 훈련의 교차점인 어린이(청소년)의 성은 권력의 목표이자 동시에 도구가 되어왔다. 즉 지배권력은 어린이(청소년)의 성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감독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예방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여겼다. (푸코와 앙리-레비와의 대담, 1995 : 21) 푸코는, “예컨대, 어린이들에게는 성별(sexe)이 없다는 것—이것은 그들에게 성을 금하는 이유, 그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 그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보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이유, 전반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침묵을 강요하는 이유인데—을 모든 이들이 어김없이 인정한다. 이러한 것이 억압의 속성이고, 단순한 형벌의 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금기로부터 억압을 구별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푸코, 1999: 24)

성의 억압가설과 관련하여, 푸코는 성의 근대적 억압에 관한 담론은 효력을 잃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엄연한 역사적·정치적 담보에 의해 보호받음으로써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보다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푸코, 1999: 26) 더 나아가서 푸코는 “내가 제기하려고 하는 의문은 왜 우리들이 억압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토록

대단한 열정,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가까운 과거와 우리들의 현재와 우리들 자신에 대해 그토록 강렬한 원한을 지닌 상태에서, 우리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말하는가이다.” (푸코, 1999: 29) 다시 말해 성의 억압가설의 문제는 성을 억압하는데 있기보다는 억압 기제를 통해 성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하고 성에 대해 계속 담론을 형성하게 하고 모든 것을 성과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하는데 있다. 실제 성에 대한 금기 사항은 금기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금기를 통해 지배 권력을 유지, 정당화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자위를 비난하는 것은 단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런 비난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밝히고 권력이 항상 옳은 편에, 진리의 편에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다시 말해 지배세력은 성을 이용하여 ‘진리’를 만들고 지배 권력이 바로 그 진리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 과정에 의사나 과학자들은 이런 진리를 공고히 해줄 ‘과학적 사실’(scientific facts)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성은 무엇보다 바로 지배 권력을 유지, 정당화 시켜 주는 기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에서 성과 권력이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현대인은 지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푸코는 “개인이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특히 그와 관련된 인간과학이나 관행들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생산되는 담론을 통하여 억압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자나 소위키, 1995: 161) 결국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지배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배 권력이 섹슈얼리티 장치 내에서 실행해온 담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즉 개인들은 진정한 탈성화(de-sexualization), 성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치환, 더 이상 모든 것을 성으로 돌

리거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문화, 담론, 언어의 형식에 대한 요구를 함으로써 지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나 소위키, 1995: 161)

푸코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성에 도입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배권력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체계에 따라 청소년의 성행위를 철저히 통제, 규제하고 끊임없이 청소년의 성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 권력의 이런 통제, 규제, 감시는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성을 신비화하여 결국에는 청소년의 성을 통제, 규제, 감시하는 지배 권력을 신비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청소년의 성이 억압되면 될수록, 청소년의 성에 관한 담론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청소년의 성에 논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청소년의 성은 지배권력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결국 청소년의 성이 지배 권력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을 탈성화시키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 이상 청소년의 일거수 일투족을 성에 연결시켜서는 안되며, 항상 청소년의 성 행태를 옳고 그른 행위로 나누는, 지배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진리체계에 과감히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배권력에 의해 청소년들의 욕망이 형성되고 담론이 형성되는 것을 거부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밝히고 이해하는 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입장은 다른 입장과 달리 청소년 성에 역사성, 사회성을 부여한다. 특히 청소년의 성이 억압당한 이유는 단순히 청소년이 어려서, 아직 성적으로 책임을 질만큼 성숙되어서가 아니라 지배 권력을 유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지배권력에게 있어 청소년이 성적 존재인가, 그들이 충분히 성적으로 성숙되어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사회의 약자로서 쉽게 침묵 당하고, 억압당하더라도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배권력은 청소년들의 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이 입장은 지금까지와 달리 청소년의 성 문제를 다루는 관점을 단순한 개인적인 관점에서부터 복합적인 지배권력의 관점으로 옮겨놓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과연 구체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지배권력을 누구로 볼 것인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지배권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이 성적 주체성을 찾고 지배권력의 성담론을 파헤쳐 지배권력이 어떻게 청소년의 성을 이용했는가를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되 구체적 현실에서 청소년의 성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세 입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들의 차이는, 첫 번째 무엇보다 청소년의 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성인의 역할이다. 성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 성인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워야한다는 입장, 성인(지배권력)으로부터 청소년의 성이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하고, 저항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성인의 지도 지침서인 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쓸데없는 지식으로 가득 찬 성교육은 필요 없다는 입장, 그리고 성교육 역시 지배 성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성, 긍정적인 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성인과 다른 청소년만의 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 그리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탈성화, 성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치환, 더 이상 모든 것을 성으로 돌리거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문화, 담론, 언어를 만들어 감으로써 지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실제 청소년의 성을 보는 이런 입장의 차이는 청소년의 성을 이해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성이 가지는 복잡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의 성은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억압당해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논란의 초점이 되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논란 속에서도 청소년은 철저히 소외되고 자신의 성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청소년의 성을 논할 때 성인을 무조건 배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성교육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면 청소년에게 해가 되기보다는 득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없애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나 청소년의 성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성에 대해 너무나 많은 논의를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되 다른 부분에 비해 청소년의 성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부분과의 조화 속에서 청소년의 성을 다루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 3. 한국에서 청소년의 성을 바라보는 입장

한국에서 청소년의 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 일이다. 이전까지 청소년의 성은 거론되어서는 안될 금기

사향이였다. 물론 과거 신라나 고려시대 때 성은 조선시대나 심지어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조선시대 때 유교가 정착되면서 성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되었다. 성적 자유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제한되었으나 특히 여성에게 극도로 제한되었다. 근대 사회에 들어 한국은 완전히 유교의 영향으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아울러 성을 독재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등으로 인해 성은 억압과 왜곡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성문화가 중심 성문화로 자리잡으면서 그 이외의 타자들-여성, 노인, 청소년-의 성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왜곡되거나 억압되거나 혹은 성인 남성의 성적 만족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전략하였다.

청소년의 성은 성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즉 청소년이 성에 관심을 보이거나 성적 행위에 참여하게 되면 그 청소년은 바로 문제 청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당시 청소년 성과 관련된 주요 연구 역시 이런 점을 확인시키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실업계 학생의 성적 행위 비교를 통해 얼마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성적으로 활발한가를 보여주는 연구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다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성적으로 활발하다는 전제하에서 행해진 연구) 혹은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얼마나 일찍 성에 관심을 보이고, 성 관련 행위를 했는가를 비교하는 연구 등은 의도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성에 관심을 갖는 학생은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라든가 혹은 문제 학생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다시 말해 문제 있는 청소년이나 성실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성실한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가진 성적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도록 강요받았다. 청소년들은 성행위에 참여할 경우 자신들이 받아야할 ‘처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성을 철저히 억누르거나 비밀스런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주어진 선택이란 자신의 성을 부인하거나 성을 인정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거나,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이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행,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성적 존재임을 철저히 부정당하고 그들의 성은 철저히 억압당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의 성이 단순히 억압만 받아왔다면 최소한 청소년에게 그렇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실은 청소년은 성적 존재가 아니다 혹은 성적 존재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성을 가능한 한 최대한 자극하여 상품을 팔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등장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다 못해 성적 욕구를 조작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은 한편에서는 성적 존재임을 철저히 부인 당하면서 또 한편에서 성적 존재임을 지나치게 강요당하는 양극단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국에서 청소년의 성을 바라보는 입장은 아직도 보수 일변도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성인들은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청소년의 발달과정 중에 성적 발달이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성인들은 청소년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 성인으로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에 대한 관심, 성에 관한 경험 등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 청소년들이 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관심을 갖는 것을 심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성적 자유를 부여하여야 한다든지, 성적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주장을 펴는 것을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청소년에게 성적 자유, 자율성이 주어져야한다는 두 번째 입장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입장을 띠는 것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하물며 한국 사회의 청소년의 성 억압, 담론을 지배권력과 관계 속에서 밝혀보려는 세 번째 입장은 아직 생소하기조차하다. 그러나 실제 한편에서 청소년의 성을 극도로 억압하면서, 한편으로 상품을 팔기 위해 청소년의 성을 이용한다든지, 청소년의 성 자체를 상품으로 부추키는 한국 사회를 볼 때, 푸코적 입장 즉 세 번째 입장에서 청소년의 성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배권력에 의해 청소년들의 성은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으며,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무엇을 잃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은 어떻게 왜곡되어왔으며, 청소년에게 지배권력에 왜곡되지 않은 성을 되찾아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도 보수적인 입장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아직 성교육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푸코 입장에 따른 청소년 성 분석을 하는 것은 아마 시기상조일 것 같다. 이런 한계를 갖고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성을 접근하는데 있어, 첫 번째 입장의 선상에서 가능한 한 두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려고 한다. 다시 말해, 아직 청소년의 성을 다루는데 있어, 성인의 지도, 책

임이 중요하다는 입장(첫 번째 입장)을 띠면서도,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서 인정하려고 한다. 또한 청소년이 성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입장),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이 지배 권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세 번째 입장)을 견지하려고 한다.

#### 4. 한국 청소년의 임신을 다루는데 있어서 취해야할 관점-성인책임론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

청소년의 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그 중 새롭게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십대 임신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게 되면 성행위의 결과인 임신은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청소년의 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국 사회나 성인이 청소년들의 성행위의 결과인 임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나 성인은 지금까지 청소년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청소년의 성적 행위의 결과인 임신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대신 청소년의 성행위 자체를 비행으로 보고, 그 결과물인 임신에 대해서도 처벌위주로 일관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돌려버린다. 즉 청소년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하였기에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고통을 감수해야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청소년이 져야지, 사회나 성인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여성의 순결을 중요시하는 남성위주의 성

문화에서 이미 순결을 잃은 여자 청소년은 동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 자연 그들의 임신에 대해서도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해 여자 청소년의 성행위 결과인 임신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을 취한다. 십대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화장실에서 낳고 죽인 사건, 혹은 강물에 던져 죽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라면서도 내 딸은 안 그럴 테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임신을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 왜 그런 일이 거듭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하고 싶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대책도 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행위 결과인 임신에 대해서 사회나 성인들은 지나치리 만큼 무관심 일변도이다. 그러면 과연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결과를 청소년만이 떠맡아야 할까? 정말 성인이나 사회나 청소년의 성행위의 결과인 임신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 답은 ‘아니다’이다.

한국 사회나 성인이 인정하건 하지 않건 청소년들은 성적 존재이고 그리고 성적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성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인은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의 성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인이나 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청소년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지 않고 있다. 실제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갖고 있고 이것을 올바르게 분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구성애씨는 아마 한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청소년의 성을 다루는 여러 입장 중

에 첫 번째 입장-건강한 성, 아름다운 성 강조,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 아름다운 성을 위해 성인의 역할 강조-에도 제대로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대부분의 성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른 교과목에 밀려 제 시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과 관련하여서는 성교육 이상의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적 행위 증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성범죄, 폭력,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임신으로부터 발생하는 낙태, 출산 등의 문제에 있어 청소년의 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문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성적 자극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로부터, TV로부터, 비디오로부터, 음악으로부터, 잡지로부터 청소년들은 엄청난 성적 유혹을 받고 있다. 그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은 성과 연결되고 성을 토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나 성인은 청소년의 성에 관련하여서는 철저하게 이중적이면서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끊임없이 청소년을 성적 존재이도록 강요하고, 끊임없는 성적 자극제를 투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성으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이나 사회는 청소년의 성적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청소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임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발달과 더불어 성인이나 사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청

소년이 현재 건강한 성적 발달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청소년에게 먼저 묻기보다는 성인이나 사회에 먼저 물어야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책임 있는 성적 주체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소년에게 묻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른 발달과 더불어 성적 발달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사회와 성인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만약 실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물론 청소년에게 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나 결과에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문제나 결과에 대해 사회가, 혹은 성인이 먼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자세와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청소년의 성행위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 결과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한 번의 실수로 일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임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또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경우, 청소년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을 다룰 때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게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여자가 몸조심해야지” 하는 남성주의적 성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여자가,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느냐, 함부로 몸을 다룬 너희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자세로 일관한다. 여자 청소년 혼자서 임신이 가능할 수 없다는 점, 즉 상대방 남자 청소년, 혹은

성인 남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함에도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인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등을 통해 임신을 한 극단적인 경우조차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구 해림원에서 2000년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가 성폭행에 의해 임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과 관련하여서 생기는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 한국의 사회나 성인들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는커녕 가혹하리 만큼 비난, 무관심으로 일관하여왔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물론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특히 성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들은 갑자기 엄청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사춘기 여성 역시 사춘기 남성과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적인 변화에 적응해 가는데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그런 시간과 훈련을 제공하기보다는 곧 바로 성인들이 생각하는 고정적인 여성의 역할을 여자 청소년에게 강요하고 있다. 자연 한국과 같이 여성의 성이 지나칠 정도로 억압을 받는 사회에서, 그리고 여성들의 성적 자유가 전혀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성에 관심을 갖는 사춘기 여자 청소년은 바로 남성중심 성문화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많은 여자 청소년이 현재 성문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은 쉽게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규정한 성적 규제를 지키도록 강요받고, 만약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성적 규제를 어겼을 때 그것에 대한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많은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임신을 하게 되는 여자 청소년은 많은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들은 낙태를 경험하거나, 미혼모가 되기도 한다. 낙태를 하였을 때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하고, 미혼모가 되었을 경우는 사회나 가정의 지탄 속에서 힘겨운 생활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입양 보내 평생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건 여자 청소년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가임 능력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할 것이 되고, 여자 청소년은 성과 관련하여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연구자는 여자 청소년의 임신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여성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취한다는 것은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자 청소년 역시 성적 존재임이 인정되고, 그들의 성이 남성중심 성문화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다양한 교육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청소년 임신을 가능한 한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게 성과 관련하여 다른 이중 잣대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순결은 여자만 지켜야한다는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다.

성에 대한 관심은 여자 청소년이나 남자 청소년이나 마찬가지로 전제하에서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단 임신한 청소년들의 경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주어져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혼자서 남 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의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상담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이 내려지더라도 임신부로서의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낙태의 시기를 놓쳐, 혹은 출산을 선택한 경우, 산모로서 여자 청소년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임신한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미래를 담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자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과 사회가 책임을 지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임신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 서구의 여러 나라는 청소년의 임신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임신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여자 청소년과 아이를 피해자로 보고 그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해왔다. 그리고 그런 입장은 청소년 임신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기본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십대 임신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Ⅲ. 한국 청소년의 성, 피임, 임신, 낙태, 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현황과 문제점
2. 한국 청소년의 피임 현황과 문제점
3. 한국 청소년의 임신 현황과 문제점
4. 한국 청소년의 낙태 현황과 문제점
5. 한국 십대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 III. 한국 청소년의 성, 피임, 임신, 낙태, 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 1.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매우 모호하면서 이중적인 입장을 취한다. 한편으로는 성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성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 물론 성인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성인은 성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공개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긴다. 특히 청소년의 성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소년은 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다. 실제 청소년 중에 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청소년은 거의 없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그전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느끼고 행동하지만, 한편으로 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그들의 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억압기제, 예를 들면 순결 이데올로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리고 성에 대해 환상을 갖고 인터넷에 등장하는 조작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진짜로 믿고 혹은 비디오를 통해 본 장면 등이 실제 가능하다고 믿고 그대로 실천해보기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개방적인 면과 동시에 보수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이중성을 갖고 있지만 결혼과

성에 대한 생각은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 1996년 6월 고려대의대 구병삼, 홍명호 교수팀에 의해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 13-19세 여성 1만 1,4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 관계와 결혼은 관계없다’가 47%, ‘사랑하면 성 관계를 허용할 수 있다’ 26.7%, ‘결혼 전까지 허용해선 안 된다’ 11%, ‘혼전 성 관계는 갖되 결혼해야한다’ 9% 등으로 나타났다. (<http://youth.co.kr/re/re04038.htm>)

또한 2000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경기대 교육대학원 김상원 교수에 의뢰해 전국의 중학생 2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중생의 83.3.%는 성 관계를 갖더라도 꼭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13.3%만이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1년 1월 18일) 비록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1998년 9월 3일 서울 중구보건소가 13개 고교 학생 1천 5백 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생 성의식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 79.5%, 여학생 44.5% 등 전체의 62.2%가 결혼 전 성 관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순결, 동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남학생의 40%, 여학생의 60% 등 전체의 49.9%가 지켜야 한다고 답한 반면, 그 나머지는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청소년도 과거와 달리 성과 결혼을 꼭 연관시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성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성 관계를 맺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상원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성 경험 비율이 남학생은 7.5%, 여학생은 4.4%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조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구병삼, 홍명호 교수팀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13세부터 19세 조

사 대상자중 5.2%가 성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한국에이즈연맹이 행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교생 중 남학생의 16.7%와 여학생의 5.4%가 성 경험이 있고, 남학생의 4.7%와 여학생의 2.8%는 성 관계를 지속하는 여성이 있다. 1998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행한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 33.9%, 여학생 23.3%가 이성친구를 갖고 있으며, 남학생 41.6%, 여학생 14.3%가 키스 또는 애무의 경험이 있다.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호서대 김혜원 교수팀에 연구 의뢰한 「국내 고교생의 성의식과 성교육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의 남녀 공학 인문, 실업계 고교 1-3학년 남학생 1천 5명, 여자 1천 43명중 남학생 13.5%, 여학생 8.1% 등 평균 10.7%가 성교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제시한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청소년이 성행위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한 예로 윤가현 교수가 14세부터 19세 남학생의 성 경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참조 집단을 근거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 5명 중 1.85명 즉 약 37.0%가 성 경험을 하고 있다. (윤가현, 2000: 88) 그리고 또한 앞으로 청소년의 성행위 참여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행위 참여가 증가함과 더불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청소년의 첫 경험의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첫 경험을 시작한 연령을 살펴볼 때, 중학생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김상원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중2 32.9%, 중1 26.8%, 중3 11.0% 순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이즈연맹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들의 첫 경험 시기는 남학생의 76.7%와 여학생의 62.7%가 중학생 때였다. 2002년 경찰청과 한국 갠럽이 함께 전국 중·고교 100개교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

사에 따르면, 첫 성 관계 시기는 17세가 38.5%로 가장 많았고, 16세 23.7%, 15세 11.9%, 18세 이후 10.4%, 12세 이하도 0.7%나 됐다. (한국일보, 2002년 5월 17일자) 이처럼 대부분 청소년들이 첫 성 관계를 맺는 시기가 중학교 때라는 것은 청소년의 첫 성 경험 시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12세 이하에 첫 성 경험을 한 청소년도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청소년의 성행위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첫 성행위 연령도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과 관련하여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경우도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게 다른 규범이 적용되고 있다. 즉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순결이데올로기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고, 자연 성행위의 참여율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낮다. 위의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론 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자 청소년의 성행위 참여 비율은 남자 청소년의 약 2분의 1정도에 해당된다. 그리고 실제 성행위시에도 대부분 남자 청소년은 성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고, 성 경험을 가진 많은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이 원해서 혹은 거절할 수 없어서 성행위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성 접촉을 할 때, 여학생의 42.7%는 남자 친구의 요구에 응해준다고 대답하고 있다. (장순복외: 2000: 45)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강제적으로, 혹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행위에 참여하는 비율(2.5%)은 매우 낮다. (박현이, 2000: 10) 성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를 묻는 한국에이즈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 45.8%, 여학생 36.4%가 '서로 원해서'로 응답했고, 남학생 14.9%, 여학생 29.9%가 '청에 못 이겨'로 응답했다. 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성행위 참여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자 청

소년이 성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매우 단편적으로,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면 단순한 성(sex)이 아니라 성에 대한 행위, 양식, 태도 등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의 성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성기, 성행위 중심의 성(sex)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성의 쾌락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고, 성에 따르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성이 생명의 탄생 즉 임신과 연결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느끼는 데는 물론 청소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교육 특히 피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성행위시 굳이 피임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 피임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한국 청소년의 피임 현황과 문제점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한국 청소년이 성행위시 피임을 하고 있을까? 김상원 교수팀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성행위시 76.8%가 피임을 하지 않고 있다.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병삼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성 관계를 맺을 때 3분지 2가량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역시, 김혜원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의 17.8%만이 여학생의 경우 13.6%만이 성행위시 피임을 했다고 응답했다. 위의 조사에 비해 약간 오래된, 성문화 연구소에 의해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1996년과 1997년),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성행위시 피임을 하는 학생은 52.2%에 이

르고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피임을 했다’가 20.4% ‘하지 않았다’가 70.2%이었다. 김혜원 교수팀 조사와 성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 피임을 사용했던 남학생의 비율이 거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성문화연구소의 조사가 김혜원 교수팀의 연구보다 훨씬 전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대상 고등학생의 지역별, 혹은 계열별 차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단지 남자 고등학생의 피임 사용이 몇 년 사이에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러기에는 여전히 비율의 차이가 크다.

피임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규칙적으로 피임을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실제 성행위시 한 번이라도 피임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매번 피임을 사용한 경우는 결과 면에서 엄청 차이가 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테고, 이런 경우도 피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을 것으로 보면, 실제 청소년의 피임 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 청소년은 어떤 피임 방법을 사용할까? 성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1996, 1997),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콘돔이 가장 많고 (49.1%), 다음이 질외사정법(31.1%), 상대방 여성이 피임 방법을 사용한 (7.8%) 순이고,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역시, 콘돔이 가장 많고 (37.5%), 질외사정법(33.3%), 먹는 피임약 복용(12.5%), 그리고 폐미돔(2.1%) 순이다.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박현이, 2000: 14) 질외사정이 58.1%, 콘돔이 30.2%, 먹는 피임약이 7.0%, 월경주기법이 4.7%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자고등학생이건 여자고등학생이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콘돔과 질외사정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이 두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피임사용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여학생이 사용하는 피임 방법인 먹는 피임약, 패미돔의 비율은 콘돔 사용이나 질외사정법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질외사정법이 고등학생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임방법’이라는 점은 고등학생이 피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적절한 피임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오래 전부터 알려진 질외사정법이 아직도 청소년들 사이에 중요한 피임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이 정확한 피임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현재 여자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피임 방법은 다양하지 못하다. 최근에 개발된 주사 피임방법(Depro Vera)이나 팔에 시술하는 시술피임방법(Implanon, 혹은 Norplant), 생리중일 때는 빼고 한 주에 하나씩 아랫배나 엉덩이에 붙이면 먹는 피임약과 같은 효과를 내는 붙이는 피임약 등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사용 방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청소년에게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왜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성행위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일까? 김혜원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남녀 학생의 33.3%가 ‘피임도구를 사러 가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21.2%가 귀찮아서, 19.2%가 준비를 못해서, 9.1%가 준비를 못해서, 9.1%가 상대방이 원치 않아서, 9.1%가 구입방법을 몰라서, 4.0%가 사용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하고 있다. 또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박현이, 2000: 15) ‘귀찮아서’ (32.2%), ‘사는게 부끄러워서’ (17.1%), ‘안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14.1%), '준비를 못해서' (13.6%),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서' (8.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여자 중3, 고 1, 2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장순복외, 2000: 70)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설마 임신할 것 같지 않아서,' '미처 피임할 시간이 없어서,' '피임에 대하여 몰라서,' '남자가 하기 싫다고 해서,' '성감을 해치기 때문,' '나를 까진 여자로 볼까봐,' '피임기구 살 돈이 없어서' 등의 순이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모두 성행위와 임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인 '설마 임신할 것 같지 않아서'는 성에 대한 무지, 그로부터 나오는 무책임성을 잘 나타낸 응답이라고 본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청소년의 책임일까? 여러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쉽고 싸게 피임 도구를 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 왜 사용하고 있는 피임 방법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문화연구소가 행한 조사에 의하면 (1996, 1997),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여자친구가 원해서'(27.5%), '사용하기 편해서'(22.8%), '구입하기 쉬워서'(19.2%), '그 방법밖에 몰라서'(11.4%)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사용하기 편리해서'(33.3%), '구입하기 쉬워서'(20.8), '그 방법밖에 몰라서'(20.8%)였다. 위의 조사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은 특성상 피임 방법 중 구하기 쉽고, 사용 방법이 용이한 것을 선호한다. 다시 말해 콘돔이나 피임약 등은 약방이나 슈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임 방법이다. 그러나 그 밖의 방법은 사용하기에도 쉽지 않고,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 특히 대부분의 여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피임 방법이 그렇다. 페미돔의

경우 사용도 불편할 뿐 아니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가격도 콘돔에 비해 많이 비싸다. 주사피임약, 시술피임 방법 등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고 산부인과에 가야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한국에서 여자 청소년이 산부인과에 간다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아무리 이런 방법들이 손쉽고, 효과적일지라도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다.

피임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들이 피임에 관해 관심을 갖고 상담을 원할 때 찾아갈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학교에서 단편적으로 받은 피임교육이나 친구들로부터 들은 정보가 전부일 뿐이다. 이처럼 한국의 청소년들이 피임에 대해 거의 무지 상태에 있고, 결과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데는 물론 청소년들의 무책임성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피임 교육이나 상담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데 더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이 국내에서도 시판되었다. 현재 청소년들이 피임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레보정의 시판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레보정이 성행위 전에 사용하는 피임 방법이 아니라는 점, 산부인과에 꼭 갈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강을 해칠 끼칠 가능성이 일반 피임약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노레보정 이전에 사전 피임 방법의 활용도를 증가시킬 여러 방도-피임교육, 피임상담, 피임 방법의 접근성-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한국 청소년의 임신 현황과 문제점

성적으로 활발한 청소년이 피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년 내 임신할 가능성이 90%에 달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근거에 토대 할 때, 한국에서 청소년이 성행위시 거의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임 방법으로 질외사정이 콘돔과 거의 맞먹는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임신을 하게 되는 당사자인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여러 이유로 인해 피임을 하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피임을 상대방 남자 청소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임의 객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피임을 사용할 경우조차 피임의 실패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2000년 대구 혜림원에 입소한 미혼모의 경우, 피임실패로 인해 임신한 경우가 44%에 달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한국 청소년 사이 임신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치에 해당하지만, 예를 들면, 13세부터 19세 여성을 대상으로 1996년 구병삼 교수가 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인 13세부터 19세 여자 청소년 중에 성 경험을 갖고 있는 14.3%가 임신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김상원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0.8%가 임신을 한 경험이 있고, 김혜원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임신을 시키거나 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질문에 대해서 성 경험을 한 남학생의 2.2%, 여학생의 10.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고 임신 경험이 있는 학생의 45%는 1회 이상, 25.7%가 2회 이상, 3회 이상이 8.3%, 4회 이상이 2.1%였다. 성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여자 고등학생 중 임신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여학생이 0.4%, '없다'라고 답한 여학생이 97.7% 그리

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1.8%였다.

그럼 과연 위의 수치가 실제 임신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정확한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임신 비율은 최소한 위에 제시된 비율보다는 높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커다란 수치로 여겨졌고, 게다가 공부를 해야 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더 더욱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비밀이 보장된 조사라도 솔직히 임신 경험을 털어놓을 여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신문지상의 기사나 뉴스 등을 통해 볼 때 십대 임신은 최근 들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대 의대 정신과 이용식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산부인과 병원을 찾는 임신모 100명중 8명 가량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식, 2000) 즉 최근 3개월간 응답자들 중 산부인과 병원을 찾은 임신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35%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병원별로 차이를 보여, 10대 임신모가 없다고 응답한 곳도 있었지만, 일부 병원은 10대 임신모의 비율이 무려 36%가 되는 곳도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7세가 28%로 가장 많았고, 18세 24%, 16세 21%, 19세 17%, 15세 7%, 14세 3% 등이었다. 10대 임신모들의 증가 추세에 대해 응답자들은 23.7%가 '크게 증가'한다고 말했으며, 55.5%는 '약간증가', 17.6%는 '별로' 3.2%는 '감소'라고 대답하고 있다.

청소년 임신 비율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할 점은 가출 청소년이나 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경우, 혹은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의 경우 어느 청소년보다 임신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그들의 거주상의 특성상 십대 임신 비율을 알기 위한 조사에서 배제되어 왔고, 자연 십대 임신을 나타내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학가족보건복지협회 부설 한국성문화연구소에서 전국 37개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여자 가출 청소년 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도보호시설의 청소년의 경우, 조사대상 43명중 86%가 성 관계를 가졌으며, 피임을 한 경우는 35.1%에 불과했고, 자연 이 가운데 24.3%가 임신을 경험했다. (연합뉴스, 2002년 5월13일)

이처럼 십대 임신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신한 십대 청소년-남자청소년 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의 대부분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 여자가 임신 사실을 알고 보인 태도는 ‘낙태비용을 부담’ (30%), ‘책임감을 느꼈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25%),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20%),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함’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현이, 2000: 17) 즉 상대 여자 청소년의 임신에 대해 당황해하면서 낙태비용을 대주는 차원에서 책임을 모면하려 하거나 혹은 임신 사실을 알고는 여자 청소년과 소식을 끊는 등 일반적으로 임신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인 책임을 지려 하거나 아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당사자인 여자 청소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는 대부분 당황하거나 재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능한 한 임신 상황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고 누군가와 임신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소년이 임신 사실을 알고 문제를 의논하는 상대는 가까운 친구나 상대방 남성에 불과하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한 상대는 ‘친구’ (47.8%), ‘성 관계 상대’ (21.7%), ‘혼자해결’ (17.4%), ‘부모’ (8.7%), ‘의사나 상담자’ (4.4%) 순이었다. (박현이, 2000: 18) 여

자 청소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97년 성문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임신 문제 최초 상담자는 ‘친구’ (42.9%), ‘없다’ (14.3), ‘부모’ (7.1%), ‘선생님’ (7.1%) 순이었다. 정순복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십대 여학생이 임신을 알린 사람은 ‘가까운 친구’ (33.3%), ‘성 관계한 남자친구’ (33.3%), ‘부모님’ (15.2%) ‘이야기하지 않았다’ (6.1%) 등의 순이다. 이처럼 남자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임신을 알고도 성인이나 전문 상담자와 임신 문제를 상담하기보다는 친구와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적절하고 전문적인 정보에 토대 하여 임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임신 후 문제 해결에 있어 전문적인 상담자에 의한 상담에 의존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 이들 청소년들이 임신 문제를 상담할 만한 전문 상담자가 주위에 없다는데 기인된다. 이처럼 청소년이 임신 후 정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상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결국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님과의 상담이나 전문적인 상담자와의 상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와의 상의를 통해 혹은 혼자서 임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대부분 낙태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임신문제 해결을 낙태에서 찾고 있을까?

#### 4. 한국 청소년의 낙태 현황과 문제점

김상원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임신을 하였을 때 해결책으로는 인공유산 (71.4%), 그리고 출산 후 입양 (28.6%)을 선택하고 있다. 김혜원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

학생의 경우, ‘인공유산 시켰다’(76.8%), ‘낳아서 기르고 있다’(10.7%), ‘자연유산 시켰다(8.0%)’, ‘낳아서 입양시켰다’(4.5%)였다. 성문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인공유산’을 했다가 64.3%, ‘별 대책이 없었다’가 14.3%, ‘무응답’이 21.4%였다. 장순복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낙태하였다’(71.2%), ‘낳아서 기르고 있다’(5.1%), ‘낳아서 입양하였다’(3.4%) ‘현재 임신 중이며 결정 못함’(3.4%)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청소년이 임신하였을 경우, 거의 대부분, 약 70-80%가 그 해결을 낙태에서 찾고 있다.

특히 문제는 청소년 사이에서 낙태가 마치 하나의 피임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듯이, 한 청소년의 경우, 서슴없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질문에, “임신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또 수술받죠 뭐”라고 답하고 있다. 피임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귀찮고 번거로워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서 “임신하게 되면 재수 없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수술로 해결한다”고 대답했다. (대한일보 2001년 2월 21일)

이런 현상은 청소년들 중 낙태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청소년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장순복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낙태를 경험한 여학생 중 한 번의 경우가 79.3%, 그 나머지 경우는 두 번 이상의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장순복외, 2000: 75) 낙태 현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점은 성행위 연령이 낮아지고, 임신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낙태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간호사는, “6, 7년 전부터 여중생은 물론 초등학생이 낙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1년 5월14일)

청소년들은 낙태를 쉽게 생각하지만 낙태 비용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현재 낙태 비용은 임신 3-5개월은 40-80만원, 그 이

상이면 최소 100만원, 실제 임신 개월 수가 많은 경우 부른 것이 값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1년 5월 4일) 몇몇 청소년들은 이렇게 비싼 낙태 비용을 벌기 위해 낙태계를 하기도 한다.

낙태계란 청소년 성매매를 있는 청소년들끼리 모여 달마다 몇 만원 씩 걷어서 통장에 넣어 두었다가 그 중 누가 임신을 하면 그 돈으로 수술비를 대주는 일종의 낙태를 위한 계이다. (Newsvision 21, 2001년 8월 30일) 낙태계는 아니더라도 낙태 비용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 2001년 5월 14일) 그러나 문제는 원조교제나 그 밖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낙태 비용을 벌다 보면, 자연 “적절한” 낙태 시기를 놓쳐 수술도 더 위험해지고, 임신부의 건강도 더욱 위협을 받게 된다.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의 경우 낙태 가능한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우 임신 초기 90일과 그 이후의 시기를 구별하고 있고,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경우, 임신 12주 내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임신 10주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나 10주 후에는 우생학적 혹은 의학적 적응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케하고 있다. (이백수, 2000) 이에 비해 낙태가 불법인 한국의 경우, 실제 낙태가 임신 개월 수와 상관없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10대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낙태 비용을 벌다보면, 시간을 끌게 되기도 하고, 성 지식 부족으로 인해, 본인이 임신을 하고도 몰라, 혹은 임신을 하고도 임신한 것을 인정하지 싶지 않은 마음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신 5개월, 6개월, 7개월이 된 상태에서 낙태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몇몇 산부인과는 엄청난 돈을 받고 이런 낙태를 해준다.

대부분 12주가 지나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외국의 경우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임신 후 12주가 지나면 가능한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임산부의 건강에도 좋고, 태아에게도 윤리적이다. 12주 이전의 경우 즉 임신 초기의 경우는 합병증-출혈, 자궁파열, 자궁 내 혈종, 자궁 경부-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부인과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13주 이후에는 환자에게 훨씬 위험하고 윤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즉 유산으로 인한 사망의 절반이 이 시기에 일어나고 많은 합병증이 유발되어 후에 임신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자궁 외 임신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임산부의 약 10%가 13주 이후에 낙태를 하는데 이중 10대의 비율이 높다는데 있다. (최두석, 2000: 47-49)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이 낙태를 받을 때 항상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장순복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십대 여학생이 낙태 시술을 받는 장소는 ‘산부인과의원’ (63.8%), ‘불법낙태시술소’ (17.2%), ‘기타’ (19.0%)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불법낙태시술소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낙태 수술을 하고 얼마 동안은 몸조리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럴 여건이 안된 십대 청소년은 낙태 수술 후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십대 여학생에게 낙태 후 몸조리 기간을 물었을 때, ‘전혀 하지 못했다’ (44%), ‘1 주일이내’ (26%), ‘2-3주일이내’ (16%), ‘1개월 이내’ (14%)로 답하고 있다. (장순복외, 2000: 77) 게다가 낙태 후 얼마 동안은 성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수술 후 바로 성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낙태 후 다시 성 관계를 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십대 여학생은, ‘1 주일이내’ (25.5%), ‘2-3 주일이내’ (27.7%)

로 응답했다. (장순복, 2000: 77)

낙태의 후유증은 그러나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낙태 후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된다. 십대 여학생에게 낙태 당시 기분을 물었을 때 (중복응답), ‘아이에게 죄책감이 든다’ (59.7%), ‘비참하다’ (55.6%), ‘부모님께 죄책감이 든다’ (42.2%), ‘수치스럽다’ (37.7%) ‘남자친구가 원망스럽다’ (32.0%), 등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비록 원치 않는 아이를 떼 경우라도, 십대 청소년은 아이에 대한 많은 죄책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그 죄책감은 일생을 통해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낙태를 하고, 낙태를 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낙태를 한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나 성인은 청소년 낙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임신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낙태로 해결해 주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의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미국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청소년 임신 문제나 낙태 문제에 대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낙태로 임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낙태함에 따라, 임신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국외 입양 문제로 국제적인 창피를 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성 정책,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즉 정부는 청소년들이 알아서 낙태를 함에 따라 많은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의 낙태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해온 한 병원 원

장에 따르면, “전국의 병·의원 수를 감안하면 한 해 낙태 건수는 정상 출산의 4.5배인 100만 여건으로 추정” 되고 “이중 미성년자가 10-20%를 차지한다” 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미성년자 낙태 수는 약 10내지 20만 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1년 5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명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0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임신중절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는 4만 4772건이 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국의 개인·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원급 이상 1927개 의료기관의 공식 진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낙태시술소에서 한 임신중절까지 합하면 그 수는 이 수치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국민일보, 2002년 10월 3일)

한 신문사에서 서울 청량리와 종로 등지의 ‘낙태전문 산부인과’ 10곳을 직접 찾아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 당 한 달에 30-50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절반 정도가 미성년자 낙태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물론 청소년들이 낙태를 하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낙태 현황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성인으로서, 늦기 전에 청소년 낙태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 14조에서 허용하는 아래 다섯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그 다섯 가지 사유는 첫째, 임부 또는 그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임부, 또는 그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

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모자 보건법은 낙태의 허용 요건으로 우생학적 적응, 윤리적 적응, 의학적 적응을 인정하고, 그 밖의 합법적인 낙태수술의 요건으로 의사에 의한 시술, 부녀 및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낙태수술은 임신 28주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백수, 2000: 37-38)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사실상 인정하는 의사윤리지침을 선포하여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즉 의협은 윤리지침 제 54조에서 ‘의사는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하여야한다’고 규정, 미성년 임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국내에서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1년 11월 16일)

그러나 의협의 이런 윤리지침은 관련 현행법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이런 법의 개정 없이 의사들이 윤리지침을 따를 경우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왜 의사협회에서 이런 윤리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정부는 낙태를 합법화하지 않을까? 낙태를 불법화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낙태가 불법임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아니라 낙태를 해야만 하는 여성들일 것이다. 낙태 비용은 부른 것이 값이 되어 버렸고, 여성들은 낙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 외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낙태를 불법화함으로써, 낙태를 제공하는 사람, 낙태를 하

는 사람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특히 십대 청소년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낙태를 함으로써 범법자가 되어 버린다. 또한 낙태를 불법화함으로써 부모 동의 없이 십대가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십대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청소년 성 문제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낙태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 비용도 의료보험에 의해 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낙태를 합법화하여, 낙태를 해주는 의사나 낙태를 받는 청소년들을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사전 피임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임신 비율을 줄이는 것일 것이다.

임신을 한 청소년 중 여러 이유로 낙태를 하지 못할 경우, 이제 해결 방법은 하나 밖에 남지 않는다. 즉 미혼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결방법은 십대 청소년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면 한국의 십대 미혼모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 5. 한국 십대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 미혼모란 혼인 전 여자와 남자가 성 관계에서 임신한 경우 혼인하지 않은 처녀로서(강간 등) 임신한 경우, 남편 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이혼했거나 과부가 아이를 갖는 상황에서 출산했을 경우 (분만 후 6개월 미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1999. 김만지, 2001에서 재인용)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성행위에 참여하는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임신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낙태를 하

는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가 없듯이, 얼마나 많은 미혼모가 있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다. 다만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명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10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병원 분만은 6730건이 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조산소나 무허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분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곳에서 분만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위의 수치보다 높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십대 미혼모들은 부모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기보다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일단 배가 불러지면 미혼모 시설로 가게 된다. 현재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8개의 미혼모 시설이 있고 총 수용인원은 345명이다.

〈표 III-1〉 미혼모시설과 수용인원

| 미혼모시설  | 소재    | 수용인원(총 정원 345명) |
|--------|-------|-----------------|
| 애란원    | 서울    | 40              |
| 구세군여자관 | 서울    | 35              |
| 혜림원    | 대구    | 50              |
| 인애복지원  | 광주    | 30              |
| 에스더의 집 | 경기 평택 | 50              |
| 마리아의 집 | 강원 춘천 | 40              |
| 자모원    | 충북 청원 | 50              |
| 마리아모성원 | 부산    | 50              |

자료:보건복지부, 2002.

그리고 미혼모 시설에 수용된 십대 미혼모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III-2〉 미혼모 시설에 수용된 십대 미혼모의 비율

| 구분 \ 연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시설수     | 8     | 8     | 8     | 8     | 8     | 8     |
| 입소자     | 1,028 | 1,161 | 1,526 | 1,646 | 1,273 | 1,588 |
| 10대     | 437   | 556   | 841   | 978   | 846   | 1,002 |
| 10대비율   | 42.5  | 47.9  | 55.1  | 59.4  | 66.5  | 63.1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2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십대 미혼모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제외) 십대 미혼의 수는 전체 미혼모 수의 과반수가 훨씬 웃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는 대표적인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연도별 미혼모 상담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96년에는 1089명의 미혼모가 상담을 받았지만, 2001년에는 1516명으로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은 십대 미혼모의 수는 95년 52%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64%를 넘었다. (한겨레, 2002년 8월 19일)

〈표 III-3〉 입양상담시설을 이용한 십대의 비율

| 구분 \ 연도 | 1995 | 1997 | 1999 | 2001 |
|---------|------|------|------|------|
| 전체 상담자  | 1148 | 1258 | 1485 | 1516 |
| 10대 상담자 | 607  | 750  | 947  | 984  |
| 10대 비율  | 52.6 | 59.6 | 63.7 | 64.9 |

자료: 홀트아동복지회, 2002.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미혼모들은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임신 후반부에는 미혼모 시설을 찾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좋지 못

한 이미지 때문에, 혹은 미혼모 시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시설 자체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듯이, 미혼모시설이 대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나마 미혼모시설이 없는 도-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가 있다) 여전히 상당수의 십대 미혼모들이 미혼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십대 미혼모는 일단 미혼모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정기검진, 진료, 상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고, 분만비도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미혼모와 더불어 생활함으로써 그전까지 미혼모라는 것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던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임신한 것이 드러날까봐 먹고 싶었던 것도 참았던 십대들이 일단 입소하면 먹고 싶은 것 등을 실컷 먹어서인지 금방 배가 불러온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혼모 시설의 경우 일단 출산을 하면 퇴소하게 되어있고, 필요한 경우만 6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어, 미혼모시설이 십대 미혼모를 장기적인 휴식처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나마 미혼모 시설에 들어온 십대 미혼모의 경우는 낫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십대 미혼모이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않은 십대 미혼모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산전 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모자는 산전 산후 의료서비스, 분만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많은 십대 미혼모는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십대 미혼모의 경우 의료보험이 부모 앞으로 되어 있어, 의료보험을 쉽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십대 미혼모는 미혼모로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임신했을 때 필요한 정기 검진, 의료 서비스로부터 배제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왜 이들은 십대 미혼모가 된 것일까? 청소년 미혼모와 관련한 한 조사에 의하며(이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24세까지 규정하고 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결정한 이유를 물었을 때, ‘아이를 낳기 위해서’ (8.3%), ‘낙태시기를 놓쳐서’ (37.2%), ‘낙태시킬 돈이 없어서’ (6.6%), ‘낙태가 무섭고 두려워서’ (11.6%), ‘미혼부가 아기를 원해서’ (5.8%), ‘낙태는 죄악이라서’ (10.7%), ‘기타’ (19.8%)로 응답했다. (김만지, 2001) 대구 해림원에서 2000년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출산을 하게 된 동기를 묻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낙태 시기를 놓쳐서’ (49%), ‘낙태가 무섭고 두려워서’ (16%), ‘낙태시킬 돈이 없어서’ (14%), ‘아이를 낳기 위해서’ (11%), ‘기타’ (10%) 순이었다. 즉 대부분의 십대 미혼모들은 아이를 원해서 출산하기를 결정하기보다는 낙태시기를 놓치거나 낙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하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십대 임신에는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십대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십대의 임신은 더 더군다나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성행위를 할 때에는 남자, 여자 청소년 같이 참여하지만 일단 여자 청소년이 임신하고부터는 임신과 관련된 모든 책임, 모든 부담은 여자 청소년의 몫이 된다. 십대 미혼모가 천 명이면, 미혼부도 천 명이 될 것이고, 십대 미혼모가 삼 천명이면, 미혼부도 삼천 명이 될텐데, 그 많은 미혼부는 다 어디 가고 미혼모만 남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 미혼모 문제를 제기할 때 함께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양육 미혼모의 생계를 돕기 위해 미혼부에게도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미혼모 문제가 얼마나 남성주의적 관점에 다루어지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 2002년 8월 19일)

결국 중요한 것은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적절한 미혼모 시설이 부족하고, 많은 십대 미혼모가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를 보는 대상은 바로 십대 미혼모와 그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점이다. 1997년 홀트아동복지회에 상담한 미혼모의 출산아 1,258명 중 2.4kg이하 저체중이 14.3%, 장애 보유가 0.9%로 전체 중 15.2%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삼식, 1998. 오영재외, 2001에서 재인용) 또한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아이는 조산, 미숙아가 될 위험이 크며, 간질, 맹농증 등 선천성 결함의 보유 및 영아사망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오영재외, 2001: 236) 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특히 십대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잘 나타내는 한 사례가 있다. 1996년 여고생이 등교길에 낳은 아이가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온갖 장애로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경향신문, 2001년 5월 21일) 아이는 태어난 후 지방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는데, 태어날 때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기록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입술이 귀밑까지 찢어지고 입천장에 8개의 구멍이 뚫린 채 왼쪽 턱뼈가 없는 선천성 안면 기형 등 중복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또 눈은 사시인데다 심한 언청이로 언어 장애 증세까지 나타내고 있다. 아이는 언청이와 입천장 구멍을 메우기 등 3차례나 대수술을 받았으나 커다란 호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십대 미혼모 아이들이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 10대라는 '준비 안된 산모'의 신체적 미성숙에다 미혼모로서 겪게 되는 정신적 불안, 갈등, 중절을 위한 약물 복용 가능성, 출산 직후 쓰레기통 등에 버려지면서 겪었을 산소부족

등을 들고 있다.

10대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이처럼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는 부모로부터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즉 임신한 것을 숨겨오던 십대 청소년은 아이를 낳고는 어쩔 줄 몰라 그냥 버려 두거나 아니면 죽이기도 하는 사례가 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김모 (17세) 양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몰래 출산한 뒤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혔고, 그 아이는 뒤에 가족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겨레, 1999년 2월 1일) 강원도 춘천에 사는 윤모(16세) 양은 자신의 집 수세식 변기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방치해 숨기게 한 뒤 이를 비닐 봉지에 싸 뒤뜰에 버렸다. (연합뉴스, 2002년 1월 5일)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십대 미혼모의 아이는 거의 대부분 출산과 더불어 입양을 가게 된다.

〈표 III-4〉 년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명)

| 구분 \ 년도 | 1997  | 1998  | 1999  | 2000  |
|---------|-------|-------|-------|-------|
| 계       | 3,469 | 3,869 | 4,135 | 4,046 |
| 국내입양    | 1,412 | 1,426 | 1,726 | 1,686 |
| 국외입양    | 2,057 | 2,443 | 2,409 | 2,360 |

자료: 보건복지부, 2002.

국내 입양의 경우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외 입양의 경우는 입양 대상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이라고 한다. 과연 입양간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에 대해 최근 스웨덴으로 입양간 한 입양

아가 해외입양 한국인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큰 비극입니다. 입양된 유색인종이 서구에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정부는 이제 비도덕적인 해외 입양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겨레, 2002년 9월 16일) 스웨덴 현지인에 비해 입양인 (한국 입양아 포함)의 경우 자살률이 현지인의 5배 이상 (특히 한국 여자가 심함), 결혼률은 현지인의 60%에 비해 절반인 30% 수준 (특히 한국 남자는 결혼하기 힘들다고 한다),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과 범죄율은 각각 현지인의 3배, 입양인의 취업률은 60%로 현지인의 80%보다 뒤쳐져있고, 그중 50%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십대 청소년이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십대들은 임신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낙태를 할 경우, 육체적 후유증, 아이에 대한 죄책감 등, 낙태를 하지 않고 미혼모가 되었을 때 역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불안, 두려움, 산전, 산후 관리 부족으로부터 건강상의 문제,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혹은 유기함으로써 오는 죄책감 등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 십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혹은 더욱 심하게 배속의 아이는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낙태되거나, 아니면, 많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엄마한테 버려지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입양, 그것도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십대 임신을 가능한 한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십대 청소년이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려고 결정하였을 때는 십대 청소년과 아이의 복지에 대한 충분히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십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 IV. 한국 청소년의 임신에 대한 대책

1.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2. 미혼모 시설의 십대 미혼모 복지



## IV. 한국 청소년의 임신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변화, 그리고 그것의 결과인 임신, 출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기는 워낙 시기적으로 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최근 미디어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성에 관심을 보이고, 성행위도 훨씬 자유로워졌고 대담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청소년의 성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지금까지 행해진 몇몇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행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소한 청소년의 10%가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혀졌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70-80%가 전혀 피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청소년이 임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신을 한 청소년의 70-80% 혹은 더 많은 숫자의 청소년이 낙태로 임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청소년 출산률은 성행위 증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미혼모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성행위 비율이 감소해서도 아니고, 피임교육이 발달해서도 아니다. 단지 청소년들이 낙태를 피임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많은 수의 청소년이 낙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다. 비록 청소년들이 임신 문제를 개인적으로 낙태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나, 사회, 성인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낙태를 하는 청소년이나 낙태를 당하는 아이에게 낙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낙태

를 하지 않고 계속 임신을 유지하여 출산을 하는 십대 청소년이나 그들의 아이들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임신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임신을 예방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의 임신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제기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윤혜미 교수는 성행위와 임신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즉 유럽은 십대의 성행위가 아니라 임신을 사회문제로 보기 때문에 성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과 피임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성교육의 주 내용이 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십대의 성행위 자체를 문제로 보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성교육의 주 내용으로 되어있다. 자연 유럽에서는 성교육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서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임신율과 인공임신 중절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윤혜미, 1999: 174)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의 경우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임신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성행위를 문제시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조하고 순결서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청소년 임신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한 대책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청소년 임신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의 청소년 임신 문제에 대한 대책은 대

책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그리고 이 십대 임신 문제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처방안은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교육이 전부일 따름이다. 물론 최근 들어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새로 신설된 여성부를 통해 그 전의 무관심, 방관자적인 자세로부터 최소한 소극적으로라도 십대 임신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의 경우, 학생들의 성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 단계에 맞는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성교육 교사용 지도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고,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부나 보건복지부는 좀 더 현실적인 미혼모 복지 정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미혼모를 저소득 모자 가정으로 분류하고 많지는 않지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십대 임신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한국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은 1960년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성교육은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순결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1966년 교육부는 ‘순결교육’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걸쳐, 이런 순결교육과는 다른 의미의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1982년 성교육 실시가 공표 되었다. 그리고 1983년부터 교육부의 성교육지도 자료가 발간되고 공식적인 학교 성교육이 실시되었다. (최동주, 1997: 87) 그러나 문제는 최근까지도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학교 성교육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성교육인가가

명확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성교육이 순결 혹은 금욕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한 것인지, 임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성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성매매와 같은 성 문제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했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는 순결이, 1980년대는 성병 예방 및 미혼모 예방, 그리고 1990년대는 성폭력 예방이, 그리고 2000년대는 양성평등교육, 인생설계교육이 성교육의 목적이 되어왔다고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정영민, 1996; 김은실외, 2001) 이것은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조차, 혹은 받은 것은 기억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을 왜 받았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학교 성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제 5차 교육과정, 제 6차 교육과정에도 각 관련교과, 특별활동 등을 통해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2000년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별로, 혹은 과외활동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혜원·이종민, 2001: 127) 교육인적자원부는 더 나아가서 2001년 3월 2일에는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침을 전국 초·중·고에 전달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 5 단계로 나뉜 성교육 교사 지침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2만 5천부를 제작·배포하였다. (경향신문, 2001년 3월 23일) 그리고 최근에서 성교육과 관련

한 전문 사이트([www.edugender.go.kr](http://www.edugender.go.kr))를 별도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현황은 어떤가? 김혜원 교수팀의 조사와 김은실 교수팀의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김혜원, 2000; 김은실, 2001) 첫 번째,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학교와 사회단체-보건소, 여성단체(성폭력상담소 포함), 청소년단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선도보호시설, 마약/AIDS 관련 단체-등이다. (김은실외, 2001: 98)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주체는 학교의 경우 교사 혹은 외부 단체로부터의 초빙 강사이고 단체의 경우 대부분 단체에 소속된 전문 성교육강사이다.

성교육 대상은 학교의 경우, 주로 초·중·고 학생인 반면 단체의 경우는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성인, 학부모, 교사, 직장인, 가출 청소년, 장애인, 대학생, 성교육 강사 등 훨씬 다양하다. 단체의 경우, 성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6.3%이다.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94.3%가 성교육을 받고 있다. 성교육 회수와 기간은 학교의 경우 일년에 1-2번이 78.4%로 가장 많고, 반년에 1-2번이 17.0%로 다음으로 많다. 그 밖에 한 달에 1-2번이 4.2%, 1 주일에 1-2번이 0.4%이다. 반면 사회단체의 경우, 1-2차시로 교육이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 8차시, 16차시 등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경우 교육 내용은 '사춘기의 신체, 심리적인 변화' (86.5%), '임신과 피임' (59.5%), '이성교제' (44.6%), '성태도 및 가치관' (42.5%)이고, 반면 사회 단체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 (18.4%), '성지식·성행동' (17.1%), '성문화' (17.1%), '신체적 이해' (14.5%), '성병/에이즈' (11.8%), '의사소통' (11.8%), '약물/마약' (9.2%) 순이다.

성교육 방법으로는 학교의 경우 ‘시청각 자료’ (74.3%), ‘강의식’ (38.7%)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사례제시’ (7.4%) ‘책자교육’ (6.0%), ‘토론식’ (4.8%) 등은 거의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사회단체의 경우, ‘비디오’ (22.4%), ‘강의’ (20.9%), ‘토론’ (14.9%), ‘OHP’ (13.4%), ‘퀴즈’ (10.4%), ‘역할극’ (9.0%), ‘슬라이드’ (6.0%) 순으로 여전히 시청각 자료나 강의에 의존하지만 학교만큼 의존하지는 않고 있고, 대신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성교육의 문제로 제시된 것은, 학교의 경우, ‘피상적이고 지루한 내용’ (61.2%), ‘청소년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내용’ (52.6%), ‘교재 및 지침서 부족’ (28.7%), ‘교사 담당자의 지식부족’ (28.3%), ‘성교육 시간의 부족’ (27.8%) 순이고 단체의 경우, 불분명한 성교육 시행의도, 연령·학년별 프로그램의 부재, 단체별 프로그램성격 중복, 대상별·특성별 프로그램의 부족, 기관별 연계 체계의 미흡을 들고 있다. 학교 성교육의 문제는 참여 학생이 느낀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나, 단체의 경우, 단체 운영자에 의해 기술됨으로써 초점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고 있다.

앞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성교육의 내용은, ‘임신과 피임’ (46.5%), ‘이성교제’ (41.1%), ‘이성간 성교’ (36.9%), ‘성태도 및 가치관’ (36.1%), ‘성기위생 및 성건강’ (35.0%), ‘이성간 키스나 애무’ (33.3%)이고 반면, 사춘기의 ‘신체 및 심리변화’ (22.8%), ‘성적 공상이나 성충동’ (24.9%), ‘비정상적 성행동’ (23.5%), ‘성역할’ (24.9%)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울 때 가장 받고 싶은 성교육 방법은 ‘사례제시’ (33.8%), ‘시청각 자료 이용’ (31.4%), ‘토론식’ (18.4%), ‘강의식’ (11.7%), ‘책자교육’ (1.8%) 순이었다. 반면, 단체의 경우, 좀 더 바람직한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건강 영역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 대상별·단계별 특성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

발, 기관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을 들고 있다.

비록 성교육 기관으로서 가정이나 사회 단체의 비중이 커가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학교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교재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와의 관계가 수직 관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성교육과 관련하여 중요 정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나 그 정책을 세우는 과정이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관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청소년의 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교육 역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성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여야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서 최소한 청소년의 성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립이 되어야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성교육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교육의 청사진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와 사회단체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의 특성상 성교육 부분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은 사회단체가 담당하고, 마찬가지로, 사회 단체 특성상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은 학교가 담당하는 좀 더 협조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교육으로서 성교육은 역시 다른 부분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노력과 돈이 투자되어야한다. 적은 시간, 노력, 돈으로 빠른 효과를 보려고 하면 십중팔구 성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성교육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유교적 성문화와 열악한 교육 여건 등으로 인해 성교육은 제대로 발전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성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성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성교육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성교육 교사를 훈련시켜야할 것이다.

아울러 좀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교육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통계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토대가 되어야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자아내면서 또한 교육적인 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실시된 프로그램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여, 평가가 좋은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대상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경우, 청소년 임신을 위한 예방 대책이란 기껏해야 성교육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교육도 실제 임신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도 않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피임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현재 거의 유일한 십대 임신 대책인 성교육이라도 제대로 실시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이 성행위시 피임을 하여 임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하겠다.

그 밖에 성교육 외 한국에서 십대 임신 예방 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미혼모 시설과 최근 여성복지 증진 차원에서 미혼모 복지 정도이다.

## 2. 미혼모 시설의 십대 미혼모 복지

미혼모시설은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 전국에 8곳이 있다. 그리고 총 입소인원은 345명이다. 입소 대상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

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이다. (보건복지부, 2000: 41-44) 입소절차는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고, 미혼모의 특수사정을 고려,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호기간은 6월 이내이고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범위 안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혼모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숙식 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자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정도이다. 분만의료 혜택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관리되고 지역 내 병원·보건소 등에서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상 분만일 경우, 그래서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 미혼모 특수 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으로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과 더불어 미혼모들은 인성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미혼모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워낙 열악해 미혼모들은 미혼모 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으로부터의 정서적 안정, 의료 혜택, 거주 혜택 외에는 다른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녀복지재원 중에서도 미혼모 복지에 할당된 비용은 0.1%에 불과하다. (윤혜미, 1999: 179) 자연 기술교육이라든가, 학교로 돌아 가려할 때 필요한 준비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십대의 발달단계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실시되고 있다. (윤혜미, 1999: 179) 더 더군다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단지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 일 뿐이다.

이런 미혼모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혼모시설

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필요한 프로그램, 상담 부분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십대 임신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십대 미혼모도 외국처럼 부모의 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의 집에서 부모와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중간의 집' 운영을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간의 집'은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의 공동주거공간으로 서울에 1곳, 지방에 4곳 등 5곳에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2002년 9월 24일)

다음은 한국과 같이 청소년 성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청소년의 임신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미국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청소년의 성과 임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보수적인 측면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임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성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여성과 아이의 안녕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청소년의 성, 임신, 출산의 현황의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국은 청소년 임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